세계비구니,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한다

4월 12일, 서울서 12개국 비구니 모여 '평화대회' 개최

세계비구니회 첫 공식행사
분단국가 평화 위해 나서
조계종 원로·총무원장 참석
대만스님들 판문점 방문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 세계 12개국에서 활동 중인 비구니 스님들이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을 위해 방한한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회장 보휘, 대만)는 4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남북통일을 위한 세계불교 비구니 평화대회'를 거행한다. 이 행사는 2016년 11월 창립된 세계불교비구니협회의 첫 공식대회로 창립법회 의미도 갖는다. 행사에는 세계 12개국 비구니스님 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의 첫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데는 부회장이자 한국지회장인 평택 명법사 회주 화정 스님〈사진〉의 원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화정 스님은 3월 28일 열린 간담회서 "대회 개최일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남북통일 염원 100일 기도를 회향하는 날이다. 앞서 지난해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회의서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를 위해 비구니들이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많은 스님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대회 개최를 우려했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에 비구니들의 염원을 더하고자 뜻을 모았다"고 한국대회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화정 스님은 "이번 평화대회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분위기를 고취하고, 비구니 스님들이 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법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대회는 12일 오전 10시 평화를 위한 법고로 시작된다. 이후 국민의례와 삼귀의 등 의식을 비롯해 조계종


세계불교비구니협회 부회장이자 한국지회장인 화정 스님.

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법어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치사가 이어진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장 보휘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각국을 대표하는 비구니스님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뜻에 맞춰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참석한다.

이날 세계불교비구니협회는 본대회에 앞서 총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한국지회와 전국비구니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남북통일' '평화'를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서는 통일상에 '여생을 금강산에서 보내고 싶다(법념 스님)', 평화상에 '남북통일의 염원(진홍 스님)', 공존상에 '승가의 청정함은 세계평화의 초석(무진 스님)' '희망 하나, 걸을 의미가 되다(성엽 스님)' '평화통일과 자비(원과 스님)' '남북통일과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혜범 스님)'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본대회 이후 13일부터는 대만불교계 스님과 재가불자 200여 명이 판문점 JSA법당 참배와 사찰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불교비구니협회는 대만 중화불교비구니협진회를 중심으로 창립됐다. 현재 대만과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영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 비구니스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 취지는 △불법 선양 △국제 자선사업 △빈약계층 어린이 교육 지원 △세계불교 문화 및 예술교류 등이다.

삼다도 천진불이 전한 선법의 하모니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은 3월 24일 제주대 아라뮤즈홀서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열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천진불들의 하모니를 사바세계에 전할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 이를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은 3월 24일 제주대 아라뮤즈홀서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열고,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스님의 법어내용으로 작사된 선법가를 비롯해 가요 등 다양한 노래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이날 제주지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선법가 중 '마음 밭 농사'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마음 밭에는' '나의 주인공'과 동요 '고향의 봄' '오빠 생각' '즐거운 나의 집&친구와 함께' 등을 합창하며 음성공양을 올렸다. 아울러 클라리넷 연주가인 부현정 씨와 드럼·퍼커션 연주가인 이병준 씨 등과 함께 무대를 꾸며 눈길을 끌었다.

연주회에서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선법가를 열심히 부르다 보니 그 마음이 넓어지고 나와 더불어 남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연 맺은 소중한 마음들이 합창단 노래로 더욱 밝아지고, 각자 자기 인생의 참 주인으로 당당한 삶을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되길 발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은 "대행선사의 법문을 받들어 어린 시절 마음도리를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창단을 창단하게 됐다"며 "아직은 부족하고 서툰 소리들이 많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향해가는 과정인 만큼 기특히 여겨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봄 농사를 잘 지어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듯이 한마음선원 소년소녀합창단도 봄 농사를 잘 지어 제주를 대표하는 멋진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윤호섭 기자

〈1면에 이어〉

"기존 플랫폼 활용, 미디어 포교 1차 과제"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방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 '블로그' '유튜브' '플리커' 등등 최근 뉴미디어 분야는 하루에도 수십가지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다. 이들 중 대중의 선택을 받는 플랫폼은 극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포교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빠른 변화의 분야인 만큼 전문가 대부분은 기존 플랫폼 활용이 직접 개발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3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톡. 종단 플러스친구 등록 등 활용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10~20대 유튜브, 30대부터 카카오톡

앱분석 기관인 '와이즈앱'의 2017년 11월 연령대별 뉴미디어 플랫폼 이용 현황을 보면 10대의 경우 전체 플랫폼 이용 중 유튜브가 1위(51.8%)를, 카카오톡이 2위(17.2%)를, 페이스북이 3위를 차지했으며, 20대는 유튜브가 1위(33.7%), 카카오톡이 2위(32%)를, 네이버 앱이 3위를 차지했다.

30대부터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의 비중이 높아지고 페이스북 비중이 낮아졌다. 30대의 경우 카카오톡(29.7%), 네이버앱(27.3%), 유튜브(26.9%) 순, 40대는 카카오톡(27.6%), 네이버앱(28.1%), 유튜브(28.1%) 순으로 앱사용이 이뤄졌다. 50대 이상의 경우 카카오톡이 압도적인 36% 사용을 기록했으며 유튜브(27.8%), 네이버앱(17.1%) 등을 기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온라인영상 이용자 환경을 보면 영상을 이용하는 기기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대세로 등장해 모바일과 PC를 함께 이용하는 이용자가 67.3%, 모바일만 이용하는 이용자는 27.7%에 달했다. 이에 반해 PC만 사용하는 이용자는 3.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특히 유튜브와 카카오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희철 BTN PD는 "콘텐츠 개발에 앞서 먼저 플랫폼을 고려해야 한다. 불교계 주 신도층인 40대 이상을 위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PD는 "최근 홍보 등이 진행 가능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이 있다. 종단과 사찰별 플러스 친구 개설을 추진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유명스님 편중, 영상 플랫폼 뒤쳐져

이와 함께 텍스트에 치우친 콘텐츠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권준 불광미디어 웹콘텐츠 실장이 분석한 미디어 현황에 따르면 텍스트 미디어인 네이버 기사 건수에서는 불교는 8만2887건으로 기독교 3만8572건, 가톨릭 1만7459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영상 미디어의 대표주자인 유튜브 콘텐츠 현황을 보면 '불교' 키워드 콘텐츠는 20만5000건으로 기독교 74만4000건, 가톨릭 9만7000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SNS 중 대표격인 페이스북의 종교계 팔로워 수를 보면 템플스테이 관련 종합이 40만7300여 명, 법륜 스님이 12만8652명 등으로 기독교 다모여 10만370명, 국민일보 10만9037명, 평화방송 2만6681명에 비해 많았다. 네이버 밴드 또한 혜민 스님 관련 종합이 3만7500여명으로 기독교 포럼 4191명, 기독교 교우회 3862명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혜민 스님과 법륜 스님 등 일부 유명 스님에 대한 콘텐츠로 이를 제외하면 기독교계에 비해 뒤처졌다.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은 "종단 차원의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다양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원섭 포교원 전법팀장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개설' '사찰 홈페이지와 포털 연결' '위키디피아 관리 인력 배치' 등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

납세자연맹-종교명성센터, 3월 27일 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3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불교 명진 스님, 도정 스님과 개신교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621명이 참여했다. 박진형 기자

